



보 도 일 시	참 고 자 료	사 진	문 의
2024. 10. 28.(월) 배포즉시 보도가능	—	—	황명선의원실 02-784-9820

## 황명선 의원, “국세청 개방형 감사관 임용 적극 검토해야”

- 중앙행정기관 38개 중 17개 기관이 타부처와 민간인 출신의 감사관 임용
- 황명선 의원, “타부처 감사관 임용은 사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황명선 의원은 “교차감찰이 적절한 방안인지 납득 되지 않는다.”라며 “제 식구 상대로 감찰하는데 뇌물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면 교차감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38개 중 17개 기관이 타부처와 민간인 출신의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공수처는 타부처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고, 법무부는 아예 민간인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자부처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감사관을 임용하는 것은 각 기관들의 사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면서 배포한 11년 전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부처 출신의 감사관 임용에 대해 그 기대효과와 장점을 잘 밝히고 있다.” 라면서 “이 내용을 브리핑했던 분이 바로 지금 국세청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타부처 출신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끝>

##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 임용 현황

### <2023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 임용 현황>

	타부처 출신	자부처 출신	민간인 출신	공 석
중앙행정기관 (35개 기관)	16	17	1	1

### <최근 3년간 사정기관 감사기구의 장 임용 현황>

	2021	2022	2023
법무부	민간인	민간인	민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석	타부처	타부처
국세청	타부처	자부처	자부처
경찰청	타부처	타부처	타부처
해양경찰청	타부처	타부처	타부처

## 2013년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열어가겠습니다.*

**보 도 자 료** 2013. 6. 3(월) 12:00시 부터 사용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개청 이래 첫 감사출신 감사관 임명 - 감사활동의 독립성 제고로 강력한 비리근절 추진 -

- 국세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본청 감사관에 외부인사인 서울고등검찰청 양근복(만 48세) 감사관을 임명하였음 (‘13년 6월 3일자)
- 국세청 감사관 직위는 2만여 국세공무원에 대해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감사하고 복무자세 전반을 감찰하는 감사관실 조직을 이끌어 가는 중핵으로
- 금번 공모에는 총 3명(민간전문가 2명 포함)이 응모하였으며, 선발 시험위원회(민간위원이 과반)의 면접심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다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임용한 것임
- 신임 양근복 감사관은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하여 1995년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1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마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주요보직에서 근무하였음
- 또한, 임명 직전까지 검사로 재직하여 현직에서의 know-how를 바로 적용할 적임자로서, 제임시절 원력을 중시하는 강력한 성과와 함께 힘든 일을 승전수법하는 것으로 평가 받아 왔음
- 이러한 경험과 자제가 세정 집행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기존의 업무방식과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이번 인사는 김덕중 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서

- 신임 감사관이 ‘제 직구 감싸기’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국세청 감사·감찰일무를 총괄 지휘함으로써 세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 개별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비리예방을 위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세무조사분야 전담 감찰팀 출범(‘13.5.1)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등 비리근절대책의 강도 높은 추진과 함께, 금번 현직 감사의 감사관 임용을 계기로

- 청렴문화가 제도와 의식전반에 걸쳐 확고히 자리잡아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생 신 일	2013년 6월 3일 (월)	장 신 부서	국세청 운영지원과
발 표 자	김민수 운영지원과장		
담당과장	김민수 운영지원과장 (02-397-1240)	담당 자	오덕근 서기관 (02-397-1242)